

■ 클릭! 인터넷

인터넷방송국(2) - 인터넷방송이 디지털 시대 이끈다!

박상정 / 기획조사부

작년 초까지 국내 인터넷방송국은 50여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현재는 250개 이상으로 무려 1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을 시작했다가 슬쩍 사라진 것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1개꼴로 인터넷방송국이 생긴 것이다. 최근에는 벤처기업 위주의 인터넷방송국에 대기업과 공중파까지 가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는 그간 인터넷방송국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접속속도가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공중파 방송국이나 케이블TV에 비해 전문화된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N세대에게 크게 어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얼토당토 (www.under.co.kr)



주로 록음악을 다루는 방송으로 라이브 콘서트, DJ 라디오 방송, 라디오 클럽밴드, 파워인터뷰, 뮤직비디오, 뮤직스타 사이트 등의 채널로 꾸며진다.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클럽밴드 채널에서는 시나위, 윤도현밴드 같은 유명한 그룹의 콘서트뿐만 아니라 마루, 디아블로, 고스락, 토스트, 체리필터와 같은 언더그라운드 그룹의 공연실황을 감상할 수 있다. DJ 라디오 방송은 '생방송 시간표'에 따라 방송되는데, 주로 대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다.

흔하지 않은 메탈 위주의 음악방송인 <Metal Jacket>, 국내 인디음악을 위주로 방송하는 <기타결과 히피결과>을 포함한 총 9개의 방송이 제공된다. DJ 라디오 방송은 생방송 도중 DJ가 신청곡을 받아 바로 들려준다. 파워 인터뷰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세계 1위 김도형과의 인터뷰, 잡지 편집자의 대모인 페이퍼 편집장 황경신과의 인터뷰, 전업작가 겸 시인 함복민과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다.

2. UCN (ucn.unitel.co.kr)

네티즌들이 푸근한 정서와 편안함, 자유로운, 따뜻함, 형식의 탈피 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한다. 네티즌이 참여하는 오디오드라마 <테마극장>, 얼마 전 신규로 개설된 100% 네티즌들의 투표결과에 의존하는 <네티즌 인기가요 Xray>, 386세대를 위한 음악방송 <백투더퓨



처>, 24시간 음악방송 <뮤직스트림라인>, 현재는 중영됐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 네티즌들만의 비디오미팅 <사랑의 클릭> 등이 그러하다. 또 생방송 중이나 방송 후에 전 스탭과 청취자들과의 채팅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철저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이지희의 이지투나잇>은 청취자와의 따뜻한 교류를 지향하며 정보, 오락, 연예, 문화 등을 다루는 종합방송으로, 매주 화·목요일 밤 10시부터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올빼미 음악마을>은 음악전문방송이며 화요일에는 낮 1시에 방송함으로써 직장인을 고려하고, 금요일에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 심야에 젊은 네티즌을 겨냥하고 있다.

3. 에니비에스 (www.anibs.co.kr)

인터넷으로 국내 아마추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인터넷 방송국이다. 에니비에스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만화 방송국으로써 만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많은 네티즌 예비만화가의 재능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연계 및 홍보한다.



또한 만화를 매개로 하여 네티즌끼리 친목을 도모하여 한 국의 우수한 작가, 작품, 캐릭터 발굴 및 홍보에 힘써 국내 만화산업 뿐만 아니라 세계 애니메이션 발전을 활성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시사·풍자, 무협·액션, 학습·동화, 스타·패러디, 성인, 순정, 스포츠, 미스터리, 판타스틱 등 장르별로 볼 수 있는 감상채널, 캐릭터가 진행하는 만화 현장 취재방송, 캐릭터 의상 콘테스트, 만화 관련 전문 쇼핑코너 등을 제공하는 만화 포털 사이트다.

4. 인디TV (inditv.hitel.net)

대안, 진보 그리고 자유를 표방하는 인디방송국은 주로 영화·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오 12시와 오후 6시 하루 2회 각 2시간 내외의 생방송을 감상할 수 있는 <인디큐>를 비롯해 동영상 VOD 서비스를 하는 <인디채널>, 자료실의 역할을 하는 <워크숍>, 여러 작품과 영화제의 현장을 중계하는 <자체 제작>, <오픈채널>, <영화광장> 등으로 이루어져 예술성을 추구하는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인디큐>는 독립영화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국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수준 높은 독립영화,

인천방송의 '리얼TV'와 케이블TV Q채널의 '아시아 리포트'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워크숍>에는 칸영화제에 '동시에'를 출품했던 김성숙 씨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론과 정보를 전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5. 무차별방송국(muchabyol.channeli.net)



'깨는 소리, 깨는 방송'을 모토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표출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98년 5월에 개국했다. 무차별이란 의미는 기본적으로 차별과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채널1 <KU:L>은 홈페이지 소개를 전문으로 하면서 인터넷에 관한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채널2 <EO는 Bubble Gum을 씹는다>는 음악 전문채널이며, 주제에 따른 음악 소개 및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채널3 <Green diary>는 캐나다의 전원생활과 문화에 대한 잡담을 풀어놓는다. 채널4 <니 멋대로 해라>는 클럽밴드들의 라이브음악을 생생하게 취재하고, 채널5 <Part time DJ>는 누구나 참여해서 디제이가 되는 코너다.

6. 캐스트서비스 (www.castservice.com)



인터넷방송 전문 포털을 표방한 가이드 사이트로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인터넷 방송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방송국의 방송물을 카테고리별 디렉토리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나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기도 한다. 그 동안 일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포털 사이트는 많았지만 인터넷 방송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포털 사이트로는 국내 최초다.

캐스트서비스는 국내 거의 모든 인터넷 방송국들과 링크작업을 완료했고, 약 3,000개에 이르는 인터넷 방송을 캐티즌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약 50,000개 이상의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패러디 사이트로 유명한 따지일보와 손잡고 '인터넷 따지방송'을 준비 중이다.